

2025 대한민국 헌혈공모전(수기)

제목 헌혈 대가족의 사랑 연대기

<피로 나눈 사랑, 그리고 생명의 의미>

2019년, 내 인생에 특별한 인연이 찾아왔다. 바로 군인 남자친구였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껴지는 묵직한 믿음과 따뜻함은 단순한 인연을 넘어선 듯했다. 더 놀라웠던 건, 그가 헌혈 명문가 집안의 일원이라는 사실이었다. 이미 100회가 넘는 헌혈을 기록한 사람이었다니, 나는 처음엔 놀랐고, 이어서 그가 살아온 삶의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우리는 흔히 영화관이나 카페, 맛집을 데이트 장소로 삼는다. 그러나 우리의 데이트 장소는 ‘헌혈의 집’ 이었다. 주말이면 서로의 손을 잡고 헌혈의 집을 찾았고, 헌혈을 마친 뒤 마주 보며 마시는 초코파이와 주스 한 잔은 세상 그 어떤 호사보다 값진 시간이었다. 사랑을 나누며 또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누는 헌혈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었다.

<사랑과 상실 속, 다시 깨달은 생명의 소중함>

2020년 말, 나는 14회의 헌혈을 기록했다. 헌혈을 하면 할수록 뿌듯함과 보람이 쌓였고, 그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2021년이 되었다. 그해 2월 20일, 나는 17번째 헌혈을 했다. 그로부터 불과 사흘 뒤, 평생 나의 정신적 지주였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대동맥판막 협착증으로 응급수술을 받으셨지만 혈액이 부족해 수술이 지연되었고, 결국 끝내 이 세상을 떠나셨다.

처음으로 중환자실에 들어셨다. 할머니는 이미 노랗게 뜬 얼굴로, 몸은 퉁퉁 부은 채 누워 계셨고, 바닥에는 수혈로도 지혈하지 못한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다. 2021년 2월 23일 오후 9시 15분, 할머니의 사망 신고를 마치던 그 순간, 내 가슴은 미어졌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아픔은 너무 컸지만, 군인 남자친구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지켜주었고, 그 묵묵한 위로에 나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할머니를 통해 배운 혈액의 소중함>

그날 이후 나는 단순한 전혈이나 혈장 헌혈이 아닌 혈소판 헌혈을 하고 싶어졌다. 강원도 강릉 병원에서는 혈액이 부족해 서울로 이송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혈액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헌혈이란 단지 피를 뽑는 행위가 아닌, 누군

가의 가족을 지키는 생명의 끈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

이후 남자친구와 운동을 병행하며 헌혈을 꾸준히 이어 갔고, 2022년 5월 8일 어버이 날, 나는 30회 헌혈을 기념해 헌혈상과 은장을 받았다. 상을 부모님께 선물하며, 나를 건강하게 낳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했다. 부모님 눈가에 고인 눈물을 보며, 헌혈은 단순히 남을 위한 일이 아닌 나와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도 배웠다.

<사랑을 맺고, 새로운 생명을 품다>

2022년 10월, 묵묵히 옆을 지켜준 남자친구와 나는 결혼했다. 서로의 헌혈증서를 모으며 쌓아온 시간만큼, 깊어진 사랑과 믿음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그리고 2023년 4월, 나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아기가 생긴 것이다. 기쁨도 잠시, 임신으로 인해 헌혈을 중단해야 했고, 헌혈의 집을 찾지 못했다.

2024년 1월, 사랑스럽고 건강한 딸을 자연분만으로 출산했다. 모유 수유를 하며, 아기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잠든 얼굴을 들여다볼 때마다 생명의 경이로움에 벅차올랐다. 그리고 다시, 헌혈의 집을 찾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다시 피어나는 생명 나눔의 약속>

출산 후 6개월이 지난 2024년 8월, 드디어 헌혈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섰다. 새 생명을 품었던 몸으로 다시 헌혈을 한다는 건, 이전보다 더 큰 책임감과 의미가 있었다. 엄마가 된 나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세상을 위한 작은 나눔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했다.

현재 2025년 4월 나는 38회의 헌혈을 기록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헌혈을 하며, 나의 딸이 자라 헌혈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가족 모두 함께 헌혈의 집을 찾는 그날을 꿈꾸고 있다. 생명을 나누는 일은 거창하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조용히 건네는 따뜻한 마음이 있을 뿐이다.

<마무리하며>

헌혈을 통해 나는 사랑을 키웠고, 상처를 치유했으며, 생명을 지켜냈다. 내 삶에 헌혈이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가장 따뜻한 희망이 되고 싶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도 작은 용기를 내어 헌혈을 해본다면, 당신 역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가족은 진정한 헌혈 대가족이 되었다. 시아버지께서는 300회가 넘는 헌혈을 하셨고, 남편은 180회를 돌파했으며, 아가씨도 130회를 넘어섰다. 얼마 전에는 새로 식구가 된 서방님도 헌혈의 집 문을 처음 열고 들어섰다. 이렇게 생명 나눔의 마

음을 이어가는 가족이라는 사실이 무척 뿌듯하다.

웃픈 이야기 하나 더 하자면, 작년 말 우리 딸이 돌치레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일이다. 의료진이 아기 혈관 찾는 게 마치 바늘구멍에 실 끼우기보다 어렵다고 하셨는데, 헌혈 대가족답게 우리 딸은 혈관이 또렷하고 튼튼하게 잘 보여서 링거 바늘을 한 번에 쏙 끼웠으며 간호사분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다. 그때 우리 가족끼리 “역시 헌혈 대가족답다”며 웃었던 기억이 지금도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채워준다.

앞으로도 나는, 그리고 우리 가족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꾸준히 헌혈을 이어가며, 딸이 크면 함께 헌혈의 집을 찾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이다. 누군가의 가족을 지키는 일, 생명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은 결코 거창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도, 헌혈로 이어진 인연과 사랑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음을 믿는다.



그림 1.
2023.12.31.
가족 모두
헌혈의집 방문하여
헌혈 인증 샷.



그림 2. 글쓴이가
바라는 헌혈 하는
가족 일러스트.



그림 3 헌혈캐릭터
와 비슷한 모자 쓴
나의 아기사진.